

김범수의 통 큰 기부... “사재 10조 절반, 사회문제 해결에”

(카카오 창업자)

(보유주식)

카카오 임직원에 신년 카톡메시지 “사회문제 심화... 문제해결 다짐 공식적 약속 되게 기부서약 추진”

김 의장, 자연재해·교육부문 등에 지난 14년간 224억 기부 하기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8일 발표했다. 그가 보유한 재산은 현재 주식만 10조원 정도임에 따라 최소 5조원을 사회에 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전에도 카카오 법인과 별도로 사회적 문제 해결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14년여간 224억원 규모의 기부를 단행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카카오 임직원에게 신년 카톡 메시지를 통해 “격동의 시기에 사회문제가 다양한 방면에서 더욱



카카오 김범수 의장.

/카카오

심화되는 것을 목도하며 더이상 결심을 더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다짐이 공식적인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부서약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김 의장이 보유 중인 카카오의 지분은 13.74%(1217만631주)다. 김 의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되며, 그의 재산 중 주식 절반만 계산해도 5조원에 달한다.

다만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제 고민을 시작한 단계이지만, 카카오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찾고 지원해 나갈 생각이다”며 “구체적인 플랜은 크루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드리며 아이디어도 얻고 기회도 열어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결정 이전에도 기부를 활발히 해왔다. 현재까지 그가 기부한 규모는 현금 72억원, 주식 약 9만

4000주(약 152억원)이다. 기부 당시 주가로 합산하면 총 224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카카오 주식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그의 기부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8월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억원(약 2830주)에 이르는 개인 주식을 전달했다. 작년 3월에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0억원 상당의 개인 주식(약 1만1000주)을 내놓았다. 당시 카카오도 20억원을 기부해 총 40억원의 코로나 기부금이 카카오에서 조성, 국민적 기부 활동을 견인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혁신기를 발돋움하는 비영리재단 아소카에도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매년 1만주씩 총 5만주를 내놓았다.

다음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미션으로

교육혁신 분야의 다양한 실험에 투자하는 벤처기부펀드인 씨프로그래머는 2015년부터 매년 10억씩 6년간 총 60억원을 투입했다.

게임인재단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억씩 5년간 10억원을 기부했다. 게임인재단은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게임인과 게임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만주씩 3년간 총 3만주를 전달했다. 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파트너와 문화예술사회공헌, 청년창업플랫폼, 도시 재생사업 등을 진행하는 조직으로 김 의장은 주식 기부를 통해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 및 운영 프로젝트에 힘을 보탤다.

이 밖에도 모교인 건국대사대부교에 장학금으로 2007년과 2011년 1억원씩 총 2억원을 기부했다.

/구세훈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현대차 “애플카 협의 진행중 아니다”

블룸버그 “최근 협의 일시중단”

현대자동차그룹이 애플의 자동차 협업 계약 소식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애플카’ 생산과 관련된 논란도 일단락 되는 모습이다.

현대차는 8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애플과의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과 관련해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 이어 “당사는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관련 다수의 해외 기업들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업계는 현대차와 애플이 ‘애플카’ 개발을 위한 협력을 논의 중이었으나, 최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양사의 논의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애플이 현대기아차그룹과 진행해 오던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 위탁 생산과 관련된 협의를 최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이 최근 한국 기아 이 외에도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도 비슷한 계획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달 20일 “당사는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관련 다수의 해외 기업들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시 이후 한달만의 재공시다.

한편 이날 현대차와 기아가 애플카 협력 중단을 공식화한 이후 현대차그룹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1만5500원(6.21%) 하락한 23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애플카 생산설 이후 주가가 급등했던 기아는 전 거래일보다 1만5200원(14.98%) 급락한 8만6300원에 마감했고, 현대모비스(-8.65%), 현대위아(-11.90%), 현대글로비스(-9.50%) 등 현대차그룹주 모두 약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들 기업의 시총은 125조4440억원으로 하루 만에 13조5560억원 감소했다. 지난 5일 현대차(53조원), 기아(41조원), 현대모비스(33조원), 현대위아(2조6000억원), 현대글로비스(8조3000억원) 등의 합산 시총은 약 138조 9000억원이었다. /양성운 기자

韓, 자동차 생산량 글로벌 5위 탈환

KAMA, 작년 총 생산량 15.5% ↓
1위 중국 이어 미국·일본·독일 順

韓, 수출 줄었지만 내수 증가 ‘선방’
제작년 7위서 작년 2단계 상승

한국이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에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5위 자리를 탈환했다.

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2020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자동차 생산은 총 7828만9796대로 전년 대비 15.5%의 감소했다. 10대 자동차 생산국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인도, 멕시코, 스페인, 브라질, 러시아 순으로 집계됐고 10개국 모두 생산이 감소했다. 1위 중국이 2.0% 줄었고 2위 미국 19.0%, 3위 일본 16.7%, 4위 독일이 24.7% 줄었다.

5위인 한국은 11.2%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어 2019년 7위에서 2020년 5위로 상승했다. 6위 인도와 7위 멕시코는 각각 24.9%, 21.2% 감소하면서 한 단계씩 순위가 하락했고 러시아는 15.7% 감소에 그치면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위권 내에 진입했다.

중국도 코로나19로부터의 빠르게 회복하며 생산 감소율이 2%에 그치면서 세계생산점유율이 2019년 27.8%에서 2020년 32.2%로 대폭 확대됐다. 전기동력차 생산·판매도 각각 7.5%, 10.9%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21.4% 감소했지만 내수 호조로 국산차 국내 판매가 4.7% 증가하면서 세계생산 감소율 15.5%보다 낮은 11.2%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특히 이로 인해 생산국 순위 5위를 탈환했고 세계생산점유율도 0.2%

포인트 높아졌다.

KAMA는 한국의 5위 탈환은 주로 코로나19에 의한 인도, 멕시코 등의 생산 차질에 기인한 것이지만 현대차 등의 노사간 협력, 최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고급차, 전기동력차 등 고부가가치 위주로의 자동차 산업 구조 급변 등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이 생산국 순위 5위를 탈환한 것은 큰 성과이나 중국 약진 등 여건변화를 감안한다면 스마트화, 고급화, 전동화 등 혁신노력은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 R&D 등 경쟁력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주주, 경영층 그리고 근로자들은 한 팀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 경협을 축적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올 지역균형 뉴딜에 예산 3.9조 투입

산업부, 추진현황·계획 중점점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총 3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박진규 차관이 8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부 산하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지역균형 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별 지역균형 뉴딜 추진현황과 계획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조달 추진방향과 설명절 대비 특별점검도 안건으로 다뤘다.

기관별로 한국전력은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한국중부발전은 ‘풍력발전 활용 제주도 수소드론 충전소 구축’을, 한국동서발전은 ‘K-Solar(솔라) 1000 프로젝트를 통한 태양광 사업 확대’ 등 에너지 분야 공공 기관들이 다수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차관은 이날 지역균형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했다. 또 공공기관이 지방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에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추가 사업 발굴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폭 17년만에 최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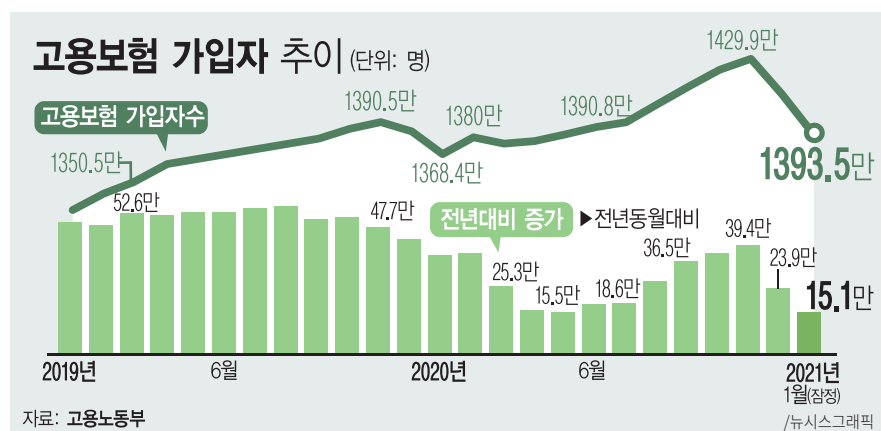
고용부, 1월 노동시장 동향

총 1384만명... 전월비 15만명 증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등 큰폭 둔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2004년 2월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특히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3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1000명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은 지난해 9월 +33만7000명, 10월 +36만5000명, 11월 +39만4000명으로 증가폭이 커지



다가 12월 +23만4000명으로 증가폭이 줄었고 올해 1월 +15만1000명으로 두달 연속 증가폭이 떨어졌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2004년 2월 13만8000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제조업의 경우 작년 7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폭을 줄이고 있지만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운수업, 예술스

포츠여가 등 대면서비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를 보이고 있다.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12월 3만4000명이 감소한 데 이어 1월에도 5만4000명 줄어, 통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